



# 선보가족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SUNBO FAMILY**  **SUNBO Ind Co.,Ltd.** 부산광역시 다대동 1517-2 TEL:051-261-3454 Http://www.sunboind.co.kr 2007년 1월 15일 월요일 | 제36호 |

## 선보가족 모두의 가정에 평화와 풍요로움이 함께 하길...

### 매출목표 천억달성 원년의 해! 제2도약을 위한 경영방침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이 자리에 함께 한 선보 가족들의 생동감이 넘치는 밝고 활기찬 모습과 함께 자신감으로 충만한 얼굴표정을 보니 올해는 회사경영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거라는 좋은 예감을 듣게 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선보가족 모두의 가정에 평화와 함께 풍요로움이 함께 하기 바라며 신년사를 낭독하겠습니다.

부품 품과 희망을 안고 정해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황금돼지 해는 600년에 한번 돌아오는 해로 재물과 복이 굴러 들어온다는 속설처럼 우리에게 올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한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진입하여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는 해이며 내부적으로 회사매출 천억 달성 원년의 해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와 “한마음운동”을 시작으로 안정과 성장의 기반 구축을 구축한 우리는 “혁신운동”과 “LIFT 21”의 완성으로 배관 전문회사의 틀에서 벗어나 이제 조선 산업의 중요한 한축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올해 당사 매출목표는 천억으로 매출 천억 달성과 제 2도약을 위해 올해 경영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첫째 **“고객중심”**입니다. 고객중심이라 함은 고객이 영업을 창출하는 회사,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제공과 함께 내부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영업을 창출하는 회사를 만들고 가꾸기 위해 고객과의 약속 지키기, 고객기념일 관리, 무결점의 완벽한 제품생산, 고객 불만 및 애로 사항 신속정확처리 등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와 함께 최고의 가치를 제공해야 하며 그 기본은 내부고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부고객관리의 기본은 EVENT 준수와 후 공정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 **“상생경영”**입니다. 상생경영이라 함은 고객과 함께 행복해지는 신바람 나는 일터조성입니다. 신바람 나는 일터가 조성되어야 무결점의 완벽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적기적소에 공급하여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

다. 일류 기업문화를 구축하여 신바람 나는 일터 조성을 위해 회사는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장 조성 및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동료애로 뭉쳐 그린작업장 조성 및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신바람 나는 일터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가꾸어 나갑시다.

셋째 **“인재제일”**입니다. 인재제일이라 함은 인재를 중시하고 인간존중의 일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인재 양성과 함께 종업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과 함께 지속적인 사내외 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능력과 능률을 발휘하는 인재와 그러하지 못한 종업원과의 차별을 강화하여 인재에게 보다 많은 혜택과 대우를 보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교육과 독려에도 불구하고 도태하는 자는 더 이상의 관용과 자비는 없음을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기술선도”**입니다. 기술선도라 함은 창의적인 기술혁신으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무결점 제품 생산입니다. 우리의 주력 제품에 대해 무결점의 최고의 제품생산을 위해 경쟁력 있는 최적의 도면표준화와 최고의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작업공법 개발입니다. 우리는 처음 만드는 제품일 경우 처음이니까 오작이 많고 생산능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와 발상은 아주 위험합니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신규업체에 안전된 기존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주하는 회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기존업체의 생산계획과 작업공법 그리고 시설의 문제점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보완하여 경쟁력을 갖춘 계획과 생산으로 처음부터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는 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회사를 자멸시키는 입임을 명심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여 시행착오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리며 끊임 없는 기술개발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초일류 기업 성장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이라 함은 선보가족 모두가 내가 최고경영자라는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서기 위해 선보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내가 사장이라는 의식과 사고, 마음가짐으로 모든 업무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면지 한장, 볼트 하나부터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과 재활용을 몸소 실천하고 최소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끊임없이 개선하는 것입니다. 혁신의 기본은 무사안일의 사고태도와 지급하고 있는 행동이나 일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과 사고의 전환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은 더 간편하고 쉬운 방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선보가족 모두는 혁신적인 사고, 책임감과 도전정신으로 최고의 위해 지속적인 업무혁신을 추진해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선보가족 대다수가 기존 것도 실천하지 못하는 데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 머리 아프게 만든다고 받아들이고 있으나 본인이 언급한 경영방침 다섯 가지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한 말들을 재정리한 것이며 2007년 10대 중점추진사항 또한 문구와 표현만 바꾸어 몇 년째 그대로 시행하는 것들뿐입니다. 연말 종무식 때 본인이 지적한 항목과 2007년 회사 경영방침, 경영목표, 10대 중점추진사항을 내 것으로 만들어 행동으로 실천하여 초일류기업으로도 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우리 선보가족 모두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초일류 기업을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2007년 올해는 무재해 365일 달성과 함께 보신각 타종시간에 맞춰 우렁찬 목소리로 600년 만에 태어난 황금돼지가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 하나되어 우리의 역량을 한곳에 결집시켜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찬 전진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2일  
선보공업(주), 선보유니텍(주), 선보하이텍(주)  
대표이사 **최 금 식**



### 2007년 시무식

정해년 새해를 맞아 우리회사는 지난 2일 시무식을 열고 2007년 새해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시무식에서 최금식 대표이사는 신년사를 통해 “2007년 황금돼지 해를 맞이해 우리회사가 제2의 도약을 위해 전 임직원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 매출목표 1,000억 달성 원년의 해!



최 상 식 전무

**매** 출 천억 달성 원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선보가 있기까지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고로 앞만 쳐다보고 열심히 일

해 왔습니다. 매출 천억 달성과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을 위해 이제 우리는 관행과 고집, 타성과 습성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 버리고 시대에 맞는 변화를 받아 들여야 합니다.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열정과 신념, 창조적인 혁신과 도전이 계속되어야 회사 성장과 더불어 우리의 앞날이 더욱 힘차고 밝을 것이며 풍요로운 미래도 함께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식과 사고의 전환, 창조적인 도전정신 함양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고 행동으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그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 실시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자질향상과 사람이 인정받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사내의 교육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관행과 고집, 타성과 습성의 그늘을 헤치고 나와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자신감과 열정으로 힘찬 전진을 시작해 봅시다.

2006년 매출목표를 초과달성한 장한 선보인 모두에게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 매출 천억 달성 원년의 해!

그리고 그늘진 곳에서 칭찬 한번 듣지 못하고 심한 모욕감을 받고도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한 사우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보다 친근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여러분의 뒷바라지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황금돼지의 행운을 우리 모두 나눠 가져 무사고 365일 달성과 함께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정 호 경 상무

**새** 해가 밝았습니다. 정해년 2007년을 맞아 올해 우리 회사의 수주목표인 1000억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모두 하나되어 힘차게 도약합시다.

지난해 작업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올해도 전 사원들이 다시 전진해 우리 회사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매일 바쁜 일상 속에 개인이나 가족의 건강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담배를 줄여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해 건강하길 기원합니다.

## 건강을 잘 챙기는 한해 되시길...

지난해 우리회사 직원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해는 현장 전체에 좋은 환경적 여건을 갖추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가정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모두 힘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합시다.



최 홍 열 상무

**20** 07년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우리 회사의 최우선 목표는 수주 1100억원 달

성입니다. 모두가 노력한다면 꼭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일부 시행했었지만 잘 안돼 중단됐던 사업들을 시행하려 합니다.

먼저 공사완료보고서 작성입니다. 어떤 공사가 완료되면 원가 분석 등 보고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해 물건을 만들어 잘잘못에 대한 원인분석, 대책 등을 기록해 다음 공사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선완료보고서 작성입니다. 우리회사는 개선활동이 부족한 편입니

다. 이번에 어떤 개선안을 만들어 적용한 후 얼마나 이득이 생기는 지 매달 발표하고, 발표집을 발간할 것입니다.

2007년에는 더욱 신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일 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월 2회 팀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등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책을 많이 읽을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목표 중 하나가 책 100권 읽고 좋은 구절 메모하기입니다. 우리회사 내

에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직원들도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 매출 천억원 달성을 목표로 공사완료보고서와 개선완료보고서 작성사업 시행



# 제2의 도약으로 선보를 초일류 기업으로!



황금돼지 꿈을 꾸면서 변화합시다.



김 양 태 전무

**선** 보가족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07년 丁亥年은 600년 만에 찾아오는 "황금 돼지해"라고들 합니다. 한자 풀이로는 활활 타오르는 불같은, 생동력 있는, 웃음띤 돼지라는 뜻이겠지요. "亥"字에서 식육점에 진열된 돼지머리의 웃는 얼굴을 떠올린다면 이것 또한 조그마한 상상력이 되겠지요.

상상력...

2007년 경제계의 화두는 상상력이라고들 합니다. 흔히들 생산의 5요소(토지, 노동, 자본, 경영조직, 상상력)에도 들어있지요. 기술력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부족한 2%는 상상력으로 채워서 신제품을 개발

하여 시장을 장악해야 한다는 뜻인데 그 예로 세계 8대 불가사의로 일컬어지는 두바이의 야자수 형상의 인공 섬, 실내 인공 스키장 등은 상상력의 결정체입니다.

그와 비슷한 공사 크기인 아직 용도불명인 우리나라 새만금 간척지와 비교해 볼때 상상력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는 LG전자제품이 중동에서 깊이 뿌리내린 이유가 나침반이 들어있는 휴대폰 때문인데 아랍인들은 하루 다섯 번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데 이것을 알려주는 기능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문화적 상상력의 결실이지요.

연화...

이토록 세상이 온갖 상상력을 발휘하여 크게 변화 되는데 우리 선보가족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현실에 안주하려는 타성이 없는지, 업무에 비효율성은 없는지, 상생의 조직력을 갖췄는지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IMF 위기를 겪은지 10년째 되는 해로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율이 그때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일본은 엔고를 20년 동안 견뎌 오면서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조선소의 채산성 악화가 예상되며 그 여파가 당장 우리에게 미칠 것이고 그래서 좀 더 강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살아 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객과 경쟁자들은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 합시다.

다시 돼지 이야기로 돌아가면 중국 요동 지방에는 "遼東亥(요동해 : 요동지방에서 기르는 돼지)"라는 검은 돼지만 길렀는데 어느 날 흰 돼지 새끼가 태어나자 이를 신기해하여 황제에게 바치겠다고 천신만고 끝에 북경에 도착해 보니 거기에는 전부 흰 돼지만 키우더라는 겁니다. 이는 세상은 급변하는데 자신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요동시만 생각하지 맙시다. 황금돼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상, 변화>

기분에 충실...

돼지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다른 한 가지는 돼지가 매우 청결한 동물이라는 것이지요. 돼지는 자고 일어나면 자기가 깔고 잤던 지푸라기를 전부 헤집어 말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고 있던 자리에서 제일 먼 곳에 불일을 보는 영특하고 청결한 짐승입니다.

지리산 어느 골짜기 농장에서는 청결한 돈사관리와 종돈에게는 산후조리 침대까지 해주니 스트레스가 없어 무병하여 폐사율이 제로로 되고 예방약값만 2000만원씩 절약 되더라는 TV 방영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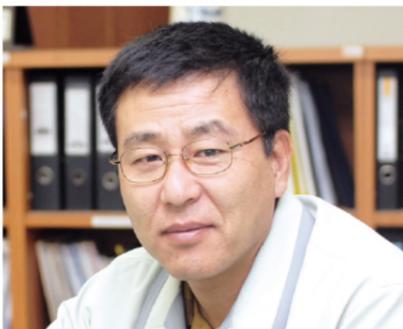
우리가 아침마다 외치는 청소, 정리정돈, 담배꽂초 안버리기 등 기본질서는 청결에 기인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양치질과 같습니다.

양치질은 안해도 밥 먹는데 지장 없고 당장 병에 걸리지 않고 별 지장을 못 느끼지만 결국은 잇몸병으로 식복을 못 누리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우리는 돼지보다 낫지 않습니까. 기본질서 확립은 양치질과 같고 우리 정신자세의 측정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는 죽어서까지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황금돼지를 상상하며 매일 매일 즐겁고 다복한 1000억 돌파한 선보가족이 됩시다.

모두 부자 됩시다. 감사합니다.



이 규 현 이사

**정** 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선보하이텍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목표공장으로서는 감회가 남다

르며 각오 또한 새롭게 하여 전남지역 조선산업의 선두주자에서 나아가 우리나라 최고가 되기 위한 목표설정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일에 최선을 다하는 선보하이텍이 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매출 100억, 2008년에는 150억, 2009년에는 200억 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매진코져 하오니 현재 근무중인 여러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합시다.

선보하이텍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은 여태껏 지녀온 구태를 과감히 벗어 버리

고 환골탈퇴를 위해 기초질서 지키기와 한 마음 운동을 시작 하고자 합니다.

2007년 한해를 기초질서 지키기와 한 마음 운동의 완전 정착의 해로 정하여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무한성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한 해로 만듭시다.

우리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인의식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곧 회사나 나의 회사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기초질서는 물론이요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에서도 한 차원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또 새로운 공법의 개발 등으로 생산성 향상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 확신 합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종업원이 아닌 회사의 주인인 "나"라는 마음가짐으로 황금 돼지해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봅시다.

2007년을 마무리 할때 우리 모두가 긍지와 자부심으로 충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합시다.

## 기초질서 지키기와 한 마음 운동의 완전 정착의 해로!

## A/S가 없는 일년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공 성 문 이사

**올** 해는 선보가족이 수출 1억불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치열한 수주 경쟁에서 오직 일등만이 살아남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정상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공생공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엔 큰 건물이 새로 만들어져 사무환

경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새로운 건물에서 열정을 가지고 희망찬 정해년 만들어 나갑시다. 동료들 간에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합시다. 각자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 할 것입니다.

2007년도는 A/S가 없는 일 년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불량품을 없애자는 이야기입니다. 설계를 잘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것이 불량품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들이 작은 일 하나에도 최선을 다하고 상호 Cross Check를 한다면 무결점 제품이 나올 것이라 믿습니다.

정해년 새해에는 선보가족 임직원 여러분 모두 희망과 웃음 가득한 한 해 되길 기원합니다.

정해년 새해에는 선보가족 임직원 여러분 모두 희망과 웃음 가득한 한 해 되길 기원합니다.

정해년 새해에는 선보가족 임직원 여러분 모두 희망과 웃음 가득한 한 해 되길 기원합니다.





# 새해기원제 및 산행실시



황금돼지해 첫번째 주말인 1월 6일 선보가족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새해맞이 “소원성취”와 “목표달성”을 기원하는 기원제를 조촐하게 거행하였습니다.

기술영업담당 부서는 최홍렬상무와 공성문이사를 필두로 전 부서원이 동래산성 등산 중 11:00에 동문정상에서, 최상식전무와 정호경상무를 축으로 한 경영지원담당 부서원들은 승학산 등산 중 14:30에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제수와 과포를 천지신명께 바치며 선보가족의 소원성취를 기원하였습니다.

기원제 후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가진 뒤풀이 행사는 어느 때보다 서로를 격려하는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해가 저무는 줄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당시의 열기와 화합의 분위기가 연말까지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영지원담당 전 임직원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기원제를 지내기 시작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 祈 願 文

雜歲次  
서기 2007년 1월 6일 선보가족은 天地神明에 고합니다.

만물의 근원인 우주와 6대주를 지배하는 天地神明의 가호와 은덕에 힘입어 선보가족은 지금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였으며 회사는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우리의 강산을 다스리시는 山神에게 고합니다.

아름다운 강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선보가족은 자비로우신 山神의 가호와 은덕

으로 지금까지 즐겁고 유쾌한 산행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선보가족이 산에 오를 때면 자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진리를 가슴으로 받아들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슴깊이 한 아름 담아 주시고 무사히 산행을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하산하여 아름다운 산아처럼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보살피 주소서.

넓고 광활한 하늘과 새끼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자비로운 天地神明에게 고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선보가족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직장이 되게 하시고 안전하고 무탈하며 건강이 넘치게 도와 주소서.

반짝이는 창의와 혁신적인 사고로 추진하는 과제마다 훌륭한 결실이 나고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마다 빛나는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보살피 경영목표를 기필코 달성할 수 있도록 급이급이 보살피 주소서.

선보가족이 생산한 모든 제품이 고객으로부터 칭송받아 고객으로 사랑받는 기업이 되게 보살피 주시어 우리의 사기와 명성이 하늘높이 휘날리도록 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天地神明에게 케를 올리는 모두에게 가족들의 건강과 행운 속에 각자의 소원을 성취하게 하시며 개인

의 성과가 일취월장하여 넉넉한 수확을 보게 하소서.

간소하나마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청결한 제수와 과포를 준비하여 天地神明과 山神에게 올리오니 음향하소서.

尙 禱

서기 2007년 1월 6일  
선보가족 일동



## 최금식 대표, 자랑스러운 구민상 받아

지난 29일 열린 제 17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식에서 우리회사 최금식 대표가 '산업근로상'을 수상했다.

우리회사 최금식 대표는 그동안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관리로 국내 조선기자재의 국산화를 이루었고 매년 30%이

상의 고성장을 이룩하는 등 대외경쟁력을 확보해왔다. 또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한 점을 높이 사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부산 사하구청은 제17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로 산업근로상 최금식

우리회사 대표 외에 효행선행상 하진태 당리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교육문화상 이세경 하남초등학교 교장 등 3명을 선정 29일 구청 강당에서 연말 종무식을 겸해 시상식을 가졌다.





## 열린 경영, 열린 선보! 젊은 선보, 미래로 희망으로!

### 대우GLOBAL TOP 로고 5개 획득, 금장 수상

우리회사는 1월 5일 열린 대우 GLOBAL TOP 신년회에서 로고패 부분에서 별 5개(만점)를 획득하여 금장을 수상하였다.

대우 GLOBAL TOP은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로 구성되어 상호간의 우호친분과 상호기술 교환 및 공동기술 개발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회사 최금식대표이사는 기자재 1분과 분과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로고패 부분은 매년 대우조선해양의 구매, 자재, QA, 설계 부분의 심사 위원들이 모기업에 대한 품질, 납기, 협조도를 평가하여 우수업체에게 별 1개를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우리회사는 5년동안 모든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로고 5개로 최고의 상인 금장을 수상하여 대우 GLOBAL TOP 최고의 협력업체로 자리매김 했다.

이는 평소 품질, 납기, 협조도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온 우리회사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실이자 2007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1000억 돌파"를 목표로 한 시점에서 좋은 출발 신호로 판단된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주관해 지난 12월 28일 개최된 제3회 대·중소기업협력대상 시상식에서 우리회사가 산자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우리회사는 기존의 2D 도면 작업을 3D로 전환하여 설계력 향상,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냈다. 이로써 매출증가 및 당기순이익 증

### 우리회사, 산자부장관 표창

가를 이룬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3회 대·중소기업협력대상'은 경영혁신, 기술개발, 구매 및 판매협력, 인력교류의 단체부문과 개인유공자 부문 등 총 5개 부문의 신청을 받아 64개 기업 및 유공자가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

며, 학계, 언론계, 경제계, 정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광수근 서울대학교 교수, 상생협력연구회 대표)에서 1차 예비심사, 2차 예비종합심사와 본심사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단체부문 14개사와 개인유공자 11명을 최종 선정됐다.

### 우리회사, 부산10대 전략산업 선도기업에 선정

부산시는 12월 20일 10대 전략산업 가운데 미래 부산경제 성장을 견인할 선도기업 532개를 선정, 발표했다. 여기에는 향만물류에서 61개, 기계부품소재 237개, 관광컨벤션 32개, 영상·IT 62개, 선물금융 5개, 해양바이오 19개, 실버 9개, 신발 50개, 수산·가공 28개, 섬유·패션 29개 등 총 523개 기업이 선정되었

으며 우리회사는 기계부품소재 부문에서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선도기업 선정은 부산 지역경제를 선도해 나갈 대기업이 부족한 산업 구조에서 10대 전략산업 가운데 산업별로 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며, 우리회사가 선도기업에 선

정됨으로써 시로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부산은행·농협·기업은행의 금리 우대, 신용보증기금·부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 기술개발 지원, 제품 판매·수출 지원, 기업애로해소 및 경영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부산테크노파크

산·학·관 연계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우리회사는 12월 12일 참여 연구센터 및 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관 연계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부산 테크노 파크는 1999년 산자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과 지역기술정책·산업정책 등 지역전략산업 기획업무 총괄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기술지도 작성 등 지역전략산업 중장기 발전전략등을 수립하여 지역 내 혁신 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상호협력의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협력업체 간담회

우리회사가 지난 12월 23일과 26일 양일간 우리회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PC'S, 철의장, 후처리 업체 중 20개 업체를 선정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회사가 마련한 특식을 함께하며 한 해 동안 협력업체들의 노고를 독려하고 새해 매출 목표인 1000억 달성을 위한 협력 관계와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는 결의를 다졌다.

한편 이날 한 협력업체 대표가 "지난해 선보공업이 협력업체들에게 양복을 선물해 정말 고마웠다"고 전하자 우리회사 최상식 전무이사는 "지난해 이미 협력업체들에게 양복을 주어 올해는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했다"며 "올해는 약소하지만 금수저 세트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 연말 선물 지급



우리회사는 2006년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직원들에게 연말 선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임·직원은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6개월 미만 임·직원은 10만원 상당의 선물이 지급되며 선물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6개월 이상 (2006년 6월 30일 이전 입사자)

- ♥ 금사세라믹 매트 (더블 + 싱글)
- ♥ 쿠쿠 압력밥솥 (10인용)
- ♥ 코오롱 파카 + 튜닝 세트

#### ■ 6개월 미만 (2006년 7월 1일 이후 입사자)

- ♥ 한경희 스팀청소기 (HS6020G)
- ♥ 주서믹서기
- ♥ 전기오븐기

#### ☞ 선물 지급 후기 ☞

연말 선물로 단골로 지급되는 밥솥과 매트 는 해마다 지급되고 있지만 매년 신청자가 제일 많은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6개월 미만자의 경우 스팀 청소기가 단연 인기 품목이었다.

올해가 입사한 한 사원은 "일 시작한 지도 몇달 되지 않았는데 연말 상여 뿐만 아니라 연말 선물까지 받게 되어 정말 기분이 좋았다."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더욱 다양하고 알찬 선물을 준비할 예정이며 선물 선정과 배포에 애쓰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한다.



# 신사옥준공

선보유니텍 구평공장 / 선보유니텍 영도공장 / 선보하이텍 목포공장



### 층별 배치도

- 1층 자재운영팀/주차장
- 2층 협력업체 사무실/검사관실/사위장
- 3층 생산관리부/품질보증부/의전실
- 4층 대표이사실/설계부
- 5층 식당

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1층 건물(124평)을 멸실 처리하여 동선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대형 UNIT 납품 시 겪어왔던 불편함을 최소화하였고, 또한 대형 트랜스포터(500t)가 현장 안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 흐름이 원활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신축공사는 선보가족들이 내 집과 같이 편안함을 느끼면서 개개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었다. 그리하여 층별로 개별 부서 사무실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업무 환경에서 부서원간의 화합을 도모하며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식당은 선보가족들의 건강을 주된 모티브로 삼아 보다 청결한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커피 한잔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편안한 휴식장소로도 이용할 수 있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선보하이텍 목포공장 확장이전

우리회사는 매출목표 1,000억 돌파와 모기업의 물량확대에 따른 수주 요청에 대비하기 위해 목포 공장을 확장 이전 하였다.

목포공장의 착공은 2006년 8월 시작하여 10월 공장 A, B동을 완공 하였으며 사무동은 12월 중순 착공하여 2월 중순 완공, 입주 예정이다.(대지 3,400평, 건평 1,000평)

이로서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확장 이전을 계기로 선보하이텍(주)로 거듭나게 되었다.

## 선보유니텍 신축사무실 준공

당사 자회사인 선보유니텍(주) 구평공장은 지난 2006년 9월에 가족들의 보다 나은 작업환경과 대형 제품들의 운반시 겪어왔던 진입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1층 건물의 사무실을 없애고 5층 건물로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였다.

선보유니텍 5층 신축 건물은 건물 외벽 3면을 채광조명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강화 유리로 설계해 개방감과 현대적 건축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설계담당자와 생산관리자를 비롯한 사원들이 실내에서도 현장 작업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작업능률



## 선보유니텍 영도공장

지난해 9월 정식으로 선보유니텍 영도공장이 문을 열었다. 10,000평 규모의 대지에 사무동과 소조조립장 등 두 개의 건물이 위치한 영도공장에 들어가 보았다.

영도공장에서 하는 일은 주로 메인테크 모듈 유니트 조립과 메인테크 선각과 의장, 엔진블록 조립이다.

지난해 9월 정식 오픈 전 8월부터 일하기 시작한 영도공장 초기 직원 수는 6명. 사무

실도 10명 남짓이었다.

이청수 차장은 “처음엔 책상도 없이 테이블에서 컴퓨터만 겨우 놓고 일 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했어요. 납기 맞춘다고 선풍기 없는 8월에도 더운 줄 몰랐을 정도니까요”라며 그때 분위기를 전했다.

당시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 지도 몰랐다는 영도공장 식구들. 신설되어 공장 가동률이 20%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10월엔 세

호선이 겹쳐 하루 유닛이 2개씩 나가 다달이 밀려 고생이 심했다. 사무실 전화도 2대 밖에 없어 일할 때 애로사항도 많았다고.

“11월까지의 사무실 전직원 평균 퇴근시간이 새벽 1시였어요. 출근이 아침 7시 반이었으니 정말 고생이 많았죠. 집에 갈 때 우스갯소리로 항상 ‘나중에 밥시다’라는 말로 퇴근인사를 대신할 정도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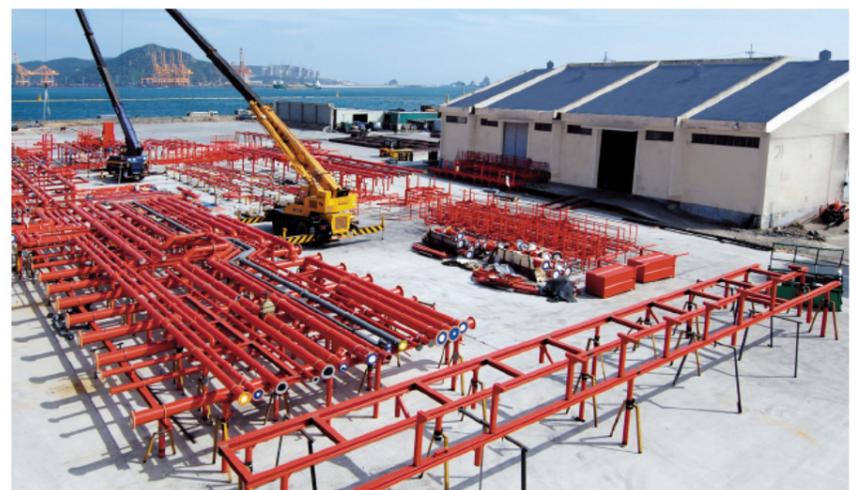
지금은 많이 정착됐지만 당시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바쁘고 힘든 시간이었다는 이청수 차장은 요즘 직원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지면 그 때 생각에 눈물이 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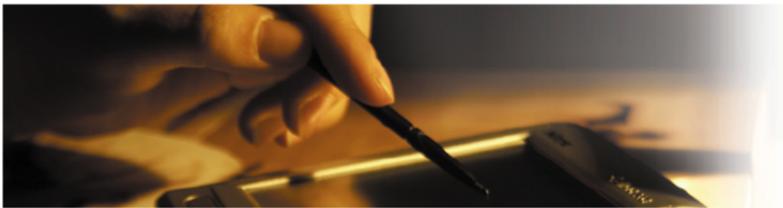
“그 때나를 믿고 같이 고생한 직원들에게

늘 고맙고 잘해줘야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장이 더 잘돼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보람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영도공장은 블록과 의장을 같이 할 수 있는 세트개념의 공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했다. 또 차후 2년 내 메가 블록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영도공장의 가까운 목표다.

“계획된 납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회전이 안되니까 적체가 될 수 밖에 없거든요. 납기를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앞으로 공장 입지를 최대한 살려 최고의 선보계열사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 핵심인재의 요건

## 대표이사 최 금 식

선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편 희망과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정해  
 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선보 역시 제가 신년사에서 밝힌 바  
 와 같이 2007년의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계획 중에는 반드시 이루고 성취해  
 야 할 것과 비록 100% 성취하기는 힘들어  
 도 우리가 이상과 목표로 삼고 추구해야 하  
 는 것이 있습니다.  
 올 한해를 맞이하며 제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인재제일의 일  
 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혼자  
 의 의지와 노력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절  
 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원 개개인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를 핵심인재로  
 생각할 때 비로소 인재제일의 기반이 조성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인이 핵심인재의 요건을 제시 하  
 고자 합니다.  
 먼저 인재가 갖추어야 할 공통적인 요소  
 인 핵심적인 요인과 기업을 이끌어 갈 경영  
 자적 자질을 의미하는 부가적 요인으로 나

뉘어 살펴보겠습니다.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요인에는  
 자발적 동기부여, 좋은 인간관계, 성취지향  
 자, 아이디어제공자가 있습니다.  
 먼저 자발적 동기부여란 누군가에 의해  
 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열정을 뽐내  
 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부터 가슴이 뜨거  
 운 친구들입니다. 일에서만 뜨거우  
 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 등 자기계발도  
 하고 있다면 금상첨화이겠지요.  
 둘째,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은 열정적이면서도 대개 품성이 온유하며,  
 주변에 협력자가 많습니다. 혼자서만 불  
 타는 독불장군을 인재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성취지향자들은 돈이 절대로 일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이들은 급여를 더  
 준다고 회사를 옮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항상 성취해야 직성이  
 풀리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고  
 민하고 도전합니다.  
 넷째, 아이디어제공자는 회의시나 대  
 화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거나 자신  
 의 일에서 늘 새로운 시도를 하는 창의적  
 인 성향

의 친구들입니다.  
 다음으로 부가적 요인은 우수한 사고  
 능력, 좋은 커뮤니케이터, 도덕적 품성,  
 "1등을 꿈꾼다"입니다. 우수한 사고능  
 력이란 대개 직관력이 우수하여 예측하  
 기를 즐기며 비즈니스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논리적 사고 체계를 가  
 지고 있어 핵심을 찌르는 예리함을 보  
 이기도 합니다.  
 흔히 대화에 능한 사람을 좋은 커뮤  
 니케이터라고 합니다. 이들은 프리젠테  
 션을 능숙하게 잘 하고, 협상력 또한 뛰  
 어납니다.  
 또한 도덕적 품성이란 깨끗한 직업윤  
 리를 가지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이런  
 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직각을  
 일삼으면서 책임감 운운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인재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1등을 꿈꾸는 사람  
 은 2, 3등에 만족하지 않고 1등만이 당  
 연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1등의 원천과  
 비결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1등이 되  
 기 위해 투지를 불태웁니다. 1등을 하  
 려고 덤비는 자와 2류도 괜찮다고 여기  
 는 자는 생각하는 것도 영

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미래 경쟁력의 핵심은 인적 자원이며,  
 인적 자원의 확보가 미래 경쟁력 제고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핵심인재의 요건을 모든 선보가족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 남몰래 베푼 선행의 주인공 \_ 임현웅 대리

남몰래 선행을 베푼 이들에게 다가가  
 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썩스럽네요."  
 지난해 연말 가방을 주워 주인에게 찾  
 아 준 선보 임현웅 대리도 같은 말을 하며  
 계속 썩스러워하는 눈치다.  
 지난해 28일 즈음 본사에 들렀다가  
 STR/SIL 공장으로 가던 임현웅 대리는  
 길에 떨어져 있는 가방을 하나 발견했다.  
 임현웅 대리는 이미 지나가던 차들에  
 치여 엉망이 된 가방 주인의 핸드폰으로  
 연락처를 알아보려 했지만 핸드폰이 고  
 장 나 연락처

를 알 수 없어 난처했다고 했다.  
 "가방을 열어보니 통장, 인감도장 등  
 거의 전 재산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속  
 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견해 주소지를  
 수소문해 보니 저랑 같은 아파트 주민  
 이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죠."  
 가방의 주인은 임현웅 대리와 같은 아  
 파트 주민이자 번개반점 주인, 짜장면  
 을 자주 시켜먹어 안면도 있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계속 고마워하  
 면서 사례하겠다고 부서서름을 물어보  
 더라고요. 저는 사례를 받으려 한 일이  
 아니라 계속 거



절했죠."  
 임현웅 대리가 계속 사례를 거절하자  
 가방 주인은 피로회복제 한 박스를 선  
 보 경비실에 맡겨두고 갔다고 한다.  
 "나중에 짜장면이나 한 그릇 먹겠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인데  
 당연히 도움을 줘야지요. 하하"  
 임현웅 대리는 이렇게 선행사실이 알  
 리지는 것이 썩스럽다며 한 마디 덧붙  
 이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알린거죠? 혹  
 시 경비 아저씨가 알렸나요? 아 썩스  
 럽네..."

최홍렬상무의 **이한권의책**

**청년경영학**

## 스트레스의 온상이 되어버린 정글 같은 회사 VS 꿈을 펼칠 수 있는 놀이터 같은 회사

**책 소개**  
 언제부터인가 회사란 스트레스의 온상이  
 되어버렸다. 약육강식의 비정한 곳, '아  
 차' 하면 생존에서 밀려나는 곳, 소위 줄을  
 잘 타야 성공할 수 있는 곳, 일주일이 쳇바  
 돌 돌 돌아가는 지루한 곳, 재미없고 참  
 고 인내해야 하는 곳.  
 어떤 사람에게 회사는 자기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터 같은 곳  
 이다. 자기 잠재력을 발견하고 혼자서는  
 이를 할 수 없는 꿈 같은 일을 현실로 만  
 드는 곳, 미래의 동업자를 만나고 인생  
 의 동반자를

만나는 곳, 때론 흥런도 치고 거기에 대  
 한 보상도 받고 나를 인정해 주는 곳.  
**시인이면서 CEO인 저자가 풀어내는  
 명쾌한 리얼 경영학**  
 저자 김연신은 회사 생활 30년 차의 인  
 생의 대선배이면서 인생의 의미를 아  
 림답게 그려내는 시인이자 냉혹한 비  
 즈니스 세계에서 인정받은 전문 경  
 영인이다. 「청년 경영학」은 이런  
 그의 시적 감성과 비즈니스적인 냉  
 철함이 만난 책이다. 저자는 조선,  
 전자, 가구, 도서유통, 금융 등 여러  
 분야

에서 탁월한 성과를 올린 회사원으로  
 서, (주)한국선박운용의 대표이사 사  
 장으로서 회사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오해를 가차 없이 거둬내면서도 인  
 생의 선배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  
 는 후배들에게 시인으로서의 따듯  
 한 시선을 보낸다.  
 이 책을 통해 그가 기대하는 것은  
 회사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  
 식을 후배들이 얻게 돼서 회사를 이  
 해하고 회사란 즐거운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칭찬 릴레이~  
**유지중** 도장팀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쁜 우리들의 이모”**  
당신을 선보가족의 10호 칭찬주자로 추천합니다.  
(추천인: 김수한)

예쁜 이모야가 정파하는 웃음바이러스에 힘든 현장일이 빛을 발하곤 합니다.  
현장의 웃음꽃 유지중씨를 칭찬합니다!

**칭찬 릴레이 10호 주인공으로 선정된 소감을 말해주세요.**  
여기에 착하고 듬직한 우리 아들들이 참 많거든요. 제가 다 아들이라고 불려요. 다른 사람보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뿔아 줘서 더 기쁘고 고맙네요. 더 열심히 일하고 살라는 의미로 알고 더 열심히 할게요. 선보에서 일한 지 5~6년 됐는데 정말 현장사람들 열심히 하거든요. 특히 9호 릴레이주자 우리 수한이는 '이모'라 부르면서 따르는데 참 재미가 있는 아이예요. 일 열심히 하는 건 물론이고요.

**어떤 마음 자세로 근무하시는지요?**  
지금은 현장 아줌마들이 아홉 사람이예요. 힘든 일 하지만 착실한 근무자이자 자상한 엄마지요. 참 힘든 일인데, 다들 일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요. 저도 그래요. 처음 현장에 왔을 땐 터치업작업 같은 간단하고 자질구레한 일을 맡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차츰 적응하면서 내가 만든 것 하나하나가 바다에 가서 큰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요즘엔 몇 십년이 지나도 '선보'가 만들어서 튼튼하다는 소리 들

고 싶어 더 열심히 일해요. 붓질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좋은 물건 만들기 위해 사소한 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하는 편이예요.

**11호 칭찬 주인공을 추천해 주세요**



**현장 사람들 열심히 하는 건 모두들 알거예요. 정말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 한 사람 추천하기 어렵네요. 칭찬은 돈 가지고도 못하는 일이지요. (고민) 여러 좋은 분들 중에 굳이 한 사람 추천하자면 김진삼 반장님을 추천합니다. 진짜 힘드실거예요. 마무리 작업하는 거 보통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거든요. 배워도 가끔 너무 모르는 거 때문에 화 날 법도 한데 짜증 한번 안내고 수고하시는 거 보면 존경스럽기도 해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힘든 일 내색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김진삼 반장님을 추천합니다.**

칭찬 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생생 현장의 소리



**신덕기업 박기태**

남양공업 때부터 함께 했으니까 선보와의 인연은 13년 정도 되어가네요. 사람과 사람 관계를 큰 재산으로 여기는 저에게 선보는 참 신뢰 가는 기업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운송업입니다. 납기날짜를 맞추다보면 잠 못 자고 새벽에 운송하는 일이 부지기수지요. 선보는 그런 저를 웃음으로 맞이해주는 따뜻한 기업입니다. 특히 생산직 직원들과는 상부상조하는 사이예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선보 작업복은 그런 의미입니다. 선보가 유니텍 업계의 최강자 아니겠습니까. 다른 중공업 야드에 가도 선보 작업복 때문에 힘을 얻는답니다. 또 저는 다른 곳에 가셔도 선보의 장점을 부각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의 좋은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주려 노력해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고생하시는 다른 분들 덕에 제가 납품하는 곳에는 선보의 이미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모기업 담당자들도 다른 업체보다 선보를 더 잘 맞이 해주고 꼭 웃으며 수고했다는 한 마디를 남겨주시죠.

일 시작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지난 IMF 외환위기 때 11톤 트럭으로 일을 시작했었어요. 각 관계자들의 도움도 참 많이 받았죠. 한 때 22톤 트럭을 몰기도 했지만 한 달 만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힘들었던 그 때 최 사장님께서 심적으로 많은 위로를 해주어 고마웠어요. 그 때 한 마디 말은 눈물을 웃음으로 바꿀 만큼 강했거든요.

처음에 선보 목표액이 20억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올해 선보 목표가 1000억이라요?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더 발전할거라 믿어요. 선보가 발전하는데 저도 끝까지 열심히 할 거예요.

선보가 올해도 안전에 최선을 다하면서 정주요 웃음 주는 따뜻한 기업이 됐으면 합니다. 물론 저도 지금처럼 뒤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올해 너가 영화소개**

- |  |   |
|--|---|
| <p><b>미녀는 괴로워</b><br/>감독: 김홍화<br/>출연: 주진모, 김이중, 성동일<br/>장르: 코미디<br/>상영시간: 120분</p>                           | <p><b>오래된 정원</b><br/>감독: 임상수<br/>출연: 임정아, 지진희, 윤희석<br/>장르: 멜로<br/>상영시간: 112분</p>                        |
| <p><b>나루토 (초승달섬의 애니멀소동 더빙)</b><br/>감독: 츠루 토시유키<br/>출연: 에드벤처, 애니메이션<br/>장르: 액션, 어드벤처<br/>상영시간: 90분</p>        | <p><b>박물관은 살아있다</b><br/>감독: 손 레비<br/>출연: 벤 스틸러, 로빈 윌리엄스, 오웬 윌슨<br/>장르: 액션, 어드벤처, 판타지<br/>상영시간: 108분</p> |
| <p><b>데스노트 라스트 네임</b><br/>감독: 가네코 슈스케<br/>출연: 후지와라 타츠야, 미즈야마 렌지, 토다 에리키<br/>장르: 미스터리, 코미디<br/>상영시간: 139분</p> | <p><b>언니가 간다</b><br/>감독: 김창래<br/>출연: 고소영, 이범수, 유건<br/>장르: 로맨스, 코미디<br/>상영시간: 112분</p>                   |
|  | <p><b>조폭마누라3</b><br/>감독: 조진규<br/>출연: 적률, 서기, 이범수<br/>장르: 액션<br/>상영시간: 114분</p>                          |

**‘선보가족’은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선보가족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 가족들의 편지나 자녀의 일기, 여행 이야기 등 다양한 글을 빨간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예쁘게 편집하여 사보에 실어드리고 덤으로 사보와 함께 문화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051-260-5535  
011-7435-3454  
윤강재 과장

**이달의 책추첨**

홈페이지 사보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 5분을 매달 말일 추첨하여 이달의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12월달에는 유니텍 설계부 오창배 사원과 권대훈 사원이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이달의 책은 경비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읽고싶은 분들은 자유 대출하세요.

**축하합니다!**

<p><b>선보공업(주)</b></p> <p><b>생일</b> 최상식 (2/06) 서원수 (1/16) 김동일 (1/28) <b>생산1팀</b> 정상규 (1/27) 양성철 (1/18) 전성문 (1/25)</p>	<p>유완중 (2/14) <b>생산3팀</b> 조숙희 (2/02) 임중화 (2/08) 이흥석 (1/16) <b>설계부</b> 강대천 (2/03) 고상현 (2/10) 오영석 (2/15) <b>자재운영</b> 김이곤 (1/15) 조경선 (1/18)</p>	<p><b>품질보증</b> 노재태 (2/04) 박상계 (2/12)</p> <p><b>입사기념일</b> <b>생산1팀</b> 박재용 (2/14) <b>생산3팀</b> 김동식 (1/16) 이상훈 (2/01) 신승훈 (2/01) 신성우 (2/01)</p>	<p><b>선보유니텍</b></p> <p><b>생일</b> <b>품질보증</b> 김현우 (1/16) <b>자재운영</b> 박춘복 (1/26) <b>설계부</b> 박오권 (1/24) <b>대한ENG</b> 허 경 (1/19) 김충복 (1/20)</p>	<p>여진수 (1/27) <b>대경산업</b> 손명건 (1/29) 성민호 (2/02) 김광주 (2/04) 오우정 (2/06) 황삼복 (2/15) <b>명성산업</b> 방중만 (1/18) 박무송 (1/28) 박현수 (2/14)</p>	<p><b>입사기념일</b> <b>생산관리</b> 김광욱 (2/01) <b>자재운영</b> 박관호 (2/01)</p>
--	--	---	---	---	---